

청교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VOL. **40**
2020 / 04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PT. Asia Chemical Industry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

ACI 건축 페인트가 만듭니다

바닥 에폭시 / 지붕 페인트 / 벽 페인트 / 보호 페인트 / 시공 가능



조도진 이사
0822-3067-5573
jodojin@aci-yuwon-biz.com

김택용 차장
081-1978-1066
kimty81@aci-yuwon-biz.com

김재옥 과장
0812-8384-8882
kimjaeok@aci-yuwon-biz.com

윤제웅 사원
0822-1348-8826
jeungyun@aci-yuwon-biz.com

보사부 승인에 따라 4월 7일부터 자카르타주에 대규모 사회적 제재 시행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가 신청한 대규모 사회적 규제(PSBB)를 4월 6일(월) 밤 프라완 아구스 뿌뜨란토 보사부 장관이 승인했다.

“이 승인신청을 한 것은 DKI가 처음이고 어제 밤 승인이 났습니다.” 보사부 대민 미디어국장 부스로나가 화요일(4월 7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해당 승인은 자카르타 주 신속대응조치의 대규모 사회적 규제시행에 대한 보사부 장관령 HK.01.07/MEN-KES/239/2020 형태로 발령되었다. 이 장관령은 2020년 4월 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에 시행된다.

이 장관령의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신속대응조치로서 자카르타 주에 대규모 사회적 제재(PSBB)를 발령한다.
2. 자카르타 주정부는 1항에 목적에 부합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규모 사회적 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도록 계도한다.
3. 대규모 사회적 제재조치는 2항 취지에 부합해 잠복기 기간만큼 시행되며 아직도 감염이 진행된다는 증거가 있을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니스 주지사가 자카르타에 PSBB 조치를 제안한 것은 4월 2일의 일이다. 이는 신속대응조치 중 PSBB에 관한 2020년 정부명령 21호에 준거하였고 자카르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며 아니스는 수도가 코로나19 진원지가 됨에 따라 PSBB 조치를 제안한 것이다.

2020년 4월 6일 자카르타에서만 125명의 추가감염자가 발생해 코로나-19 누적감염자 1,268명 중 67명이 완치,



▲ 일간 콤파스(2020년 4월 7일자 기사)

284명이 자가격리, 791명이 중증치료 그리고 126명이 사망했다. 1,268명이 양성감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관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 장갑 등의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현지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니 보건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병원 2,820곳, 지역 진료소 9,884곳에서 하루에 총 290 톤의 의료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후 의료 폐기물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환경산림부는 코로나19 치료 전문 위탁 병원 132개소에서 폐기되는 분량도 포함해 방호구나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구 및 비품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인이

자 가운데 761명이 자카르타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5명은 주소지 확인이 되

인니 정부,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 대책 서두른다

사용하는 마스크도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산림부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치료에서 사용되는 의료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지 않도록 감염성 폐기물과 가정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회람을 공포했다.

회람은 최소한 이틀에 한 번 꼴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해 소각로나 고압증기 멸균기(오토 클레이브)를 이용해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회용 마스크 처리에 대해서는 “잘게 절단하는 등 재사용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을 요구했다.

자카르타 주

정부 환경국

유해 폐기물

부서 책임자

인 로사씨는

“일회용 마

스크는 전문

시설을 통해

처리하기 때

문에 일반 가

정에서도 다른

쓰레기와 분리

배출해 달라”

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소각로 사용이

늘어나면 발암

물질인 다이옥

신 등이 많이

배출돼 대기가

오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건부는 장갑, 방호복, 마스크 등은 오토클레이브로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병원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 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국토부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서 러브콜 쏟아져”

K-시티 프로그램 국제공모에 23개국 80건 사업안 신청접수



▲ K-시티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 접수 결과[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K-시티(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의 국제공모에 23개국에서 80건의 사업안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한국형 스마트 시티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한·아세안 스마트 시티 장관회의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이다. 협력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

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은 스마트 시티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고, 단일 솔루션형에는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분야별로 스마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G2G(정부 대 정부)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 신청 주체를 해외정부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공모 결과를 지역별·국가별로 보면 신남방 지역은 10



개국에서 39건(48.8%), 신북방 지역은 6개국에서 27건(33.8%), 중남미 지역은 4개국에서 9건(11.3%)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터키에서 16건, 말레이시아 9건,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는 5건의 사업안을 신청하면서 한국형 스마트 시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스마트 도시 개발형이 17개국에서 31건(38.8%)을 제출했다.

국가나 도시 전체에 대한 스마트 도시 개발 로드맵 수립(라오스)에서부터 신도시 개발(인도네시아·미얀마·필리핀 등), 역세권 개발(호주·인도 등), 공항 이전부지 개발(페

루 등), 산업단지 개발(터키·러시아 등)까지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스마트 단일 솔루션형은 19개국에서 46건(57.5%)이 신청됐다. ITS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 분야(15건), 데이터통합 및 운영플랫폼 구축 등 전자정부 분야(14건), 치안·방재 분야(6건), 스마트 물관리 분야(4건),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등 환경 분야(4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 요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달 20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수젠텍,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수출



▲ 수젠텍은 31일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2020.03.31. [수젠텍 제공]

수젠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5만개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필리핀, 브라질 등 20개국에 수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젠텍 관계자는 “현재 진단키트 300만개 이상의 주문이 확정됐다”며 “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의심 환자의 혈액에서 특정 항체를 검출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진단키트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직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낮은 정확도 등을 이유로 항체를 이용한 면역진단 방식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자동차 제조업계에 인공호흡기 생산 요청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자동차인도네시아자동차제조업협회(가이킨도)에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실제 인공호흡기 생산 착수까지 시간이 걸린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3

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산업장관은 3월 27일 “공급 부족이 우려돼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에게 인공호흡기의 생산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빈 자동차 전문가가는 “인공 호흡기의 생산을 시작하려면, 설계도, 원자재, 생산 라인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기 제조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새로 도입해야 할 수도 있어, 실제 생산 개시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 호흡기의 생산 요청에 대해 도요타 인도네시아 제조자회사 도요타 모터 매뉴팩처링 인도네시아(TMMIN)의 밥 이사(총무·기업·마케팅 담당)는 3월 27일 “산업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하며 “부품을 생산하거나 인공호흡기 자체를 제조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도네시아 한인, 쉽게 코로나 검사받는다 ... 전남 진료팀 가동

한인회-자카르타 메디스트라 병원 협약체결...한국산 진단키트 비치



▲ '한인전담 COVID-19 진료팀' 이 사용할 신속진단키트 기부신청우 젠바다 인도네시아법인 대표(좌)와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제공]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에 사는 한국인들은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 발현 시 쉽게 검사받을 수 있게 됐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7일 자카르타 한국대사관 인근 메디스트라 병원과 '한인전담 COVID-19 진료' 협약을 체결, 8일부터 시행한다. 발열과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교민은 한인회(☎021-521-2515, 카카오톡 ID Korasos)로 연락해 진료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후 한인회에서 알려준 예약 시간에 메디스트라병원 응급실을 방문, 직원 안내에 따라 문진과 폐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필요하면 한국대사관에

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폐렴 증상이 보이면, 신속 진단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한다. 이때 사용하는 신속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의 젠바다가 생산한 제품이다. 젠바다는 인도네시아 정부·병원 등과 신속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 1차로 10만개가 현지에 도착했다. 젠바다는 메디스트라병원의 한인전담 진료팀이 사용하도록 자사 진단키트를 이날 한인회에 기부했다. 신창우 젠바다 인도네시아법인 대표는 "중국 제품과

Medistra 병원 한인전담 COVID-19 진료 절차

COVID-19 진찰을 희망하는 동포 한인회로 연락

☐ (연락처) 평일주간 09:00~17:00 021-521-2515 / 비상시 0812-1960-308, 카카오톡 ID : Korasos / 이메일 주소 : innehaninhoe@gmail.com

병원 응급실 방문 → 직원 안내에 따라 문진, X-ray 촬영

☐ (대사관 통역지원) 진료중 필요시 대사관과 병원에서 지정된 모바일 폰을 통해 3자 통역 제공

촬영결과 폐렴증상 보이면 PDP 환자로 분류, 검사 진행 / 이상증세 없을시 정밀검사를 위한 CT 촬영 선택 가능

☐ (병원측 검체실시 외 한인회 신속진단키트 도입) 검체(swab) 실시후 결과 통보까지 약1주일 소요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및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한국산 신속진단키트를 순차적으로 확보, 신속진단검사(15분내 결과확인)를 지원해나갈 예정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증환자는 자가격리, 유증상/ PDP 의심환자는 Medistra 병원 내 격리(20개 병상), 수송 불가능시 지정병원/ 기마요란 선수촌으로 이송 격리

진료내용	
세부 진료 내용	
- 응급 진료	- 신속진단키트 검사 : 15분 내외 결과 확인
- 의사 문진	- 검체(Swab) 검사 : 약1주일 내 결과 확인
- X-ray 촬영 / CT 촬영	- 격리조치 : 입원 또는 이송

※ 상기 진료내용은 환자의 증상과 의사 판단에 따라 진행
※ 검사(신속/검체)의 경우 검사외연구소와 확인기간에 따라 비용 상이, 상담시 결정
※ 기본진료비(약50만루피아)/ X-ray(30만루피아), CT(2.8주파)/ 검체검사(2.5주파)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만 내원 권장

달리 우리 제품은 정확도가 96~100%"라며 "손가락에서 피 한 방울을 채취해 키트에 떨어뜨리면 1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젠바다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그동안 말라리아, 뎅기열, 티푸스, 에이즈, 마약 등 각종 진단 키트를 생산해왔다"며 "코로나19 키트는 아직 한국에서 만들어 현지로 가져왔으나 조만간 인도네시아 공장에서도 생산하도록 현지 보건부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스트라 병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6시간이면 PCR 결과가 나오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상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그동안 교민들께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도 현지 병원에 혼자 찾아가는 자체를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셨다"며 "이에 우리 한인회가 대사관과 함께 한인 전담 진료팀을 가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가능한 한인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 먼저 진찰을 받아보고,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메디스트라 병원에서 검사받으라고 권고했다.

메디스트라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기본진료비는 약 50만 루피아(3만7천원)이고, 엑스레이 촬영 30만 루피아(2만2천원), CT 촬영 280만 루피아(21만원), PCR 검사비 250만 루피아(19만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달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자 모금 운동을 벌여 7억9천160만 루피아(5천853만원)를 이달 1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또, 인도네시아 현지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한인 마스크공장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뒤 교민들에게 1차로 2만장, 2차로 1만9천여장,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1만장, 인도네시아 취약계층에 1만장을 무료배포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곳에 있는 우리의 불안감도 커지지만, 이런 위기일수록 힘을 한데 모으고 슬기롭게 대처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의 3천개 회사가 재택근무제 시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 노동이민청은 6일 기준 3,290개사가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정부가 3월 23일부터 외출자제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주정부의 안내장이 배포되기 전인 3월 18일 시점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던 회사 220개사에서 대폭 증가했다.

노동이민청은 3일자 발행한 안내장을 통해 재택근무 권고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보건, 식량·생필품, 에너지, 금융결제 시스템, 교통, 통신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은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PT. KUMGANG INTERNATIONAL

35년 경험과 기술의 기업!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죠 ㅎㅎ
35년 알루미늄 샷시문 생산 외길을 걸어온
장인정신으로
인도네시아 문(門)시장을 활짝 연다!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방화문 & 패션도어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JL. Panglima Polim Raya No. 60A Jakarta Selatan
Tel : 021 2930 5937 **Fax** : 021 2930 5938

Factory : JL. Pengampelan Rt. 06 Rw. 03 Kp. Nambo Kaserangan Cirus Serang, Banten 42182
www.kgfiredoor.com **E-MAIL** : kumgang.int@gmail.com

힘 잃은 ‘신북방·신남방 전략’

인니 수도 이전·동북아 철도 등
인프라 협력사업 코로나에 발목
통상 부문도 줄줄이 연기·취소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상분야 최대 역점사업인 신북방·신남방 전략도 코로나19사태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남·북으로 각각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동북아철도 건설사업 추진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3월 말 개최할 예정이었던 인니 정부와의 공동세미나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6월 중 개최로 한차례 미뤘으나, 국내에 이어 인니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추후 일정을 잡지 못했고 세미나에 이은 공무원 초청행사 등도 줄줄이 보류됐다.

그나마 연초 인니로 파견한 행복청 및 LH 협력관(3명)은 아직 현지 정부 수도이전TF(태스크포스)에 합류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현지에서도 재택근무가 불가피해 적극적인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 그간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니 수도이전 사업은 총사업비 약 40조원을 들여 보르네오섬에 신수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양국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1월 정부간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신남방 최대 인프라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신북방 대표사업으로, 약 34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동북아 철도건설사업도 난항에 봉착했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이 빠진 가운데서도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 주요국이 공동체 논의를 이어왔으나 올 들어서는 그마저도 중단됐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동북아철도는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인프라 외 통상부문 신남방·신북방 협력사업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1분기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의 경제협력위원회가 줄줄이 취소·연기(대체)됐고, 신남방 핵심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서울이 대신 인니로 장소를 변경한 상태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청와대가 나서 비서관까지 신설하면서 역점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협력사업이 중단, 보류된 상태”라면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신북방·신남방 전략도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경제



김재훈의 세무상식

재무부장관령 23호

지난 3월 23일 재무부 장관령 23호 (No.23/PMK.03/2020) 로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에 세제 혜택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모든 납세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재무부장관령 23호에 첨부되어 있는 업종분류코드 (Kode KLU) 에 해당되는 납세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 소득세법 제21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1 / 근로소득세)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A 에 해당되는 업종 / KITE로 지정된 회사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납세등록(NPWP)을 하였고, 연간 소득이 2억루피아를 넘지 않는 근로소득세는 2020년 4월 과세분부터 2020년 9월 과세분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동 재무부장관령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여야 하고 세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5 영업일 이내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세제 혜택 (Insentif PPh22 / 수입 시의 원천징수 소득세)

—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F 에 해당되는 업종, KITE로 지정된 회사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법인세 면제신청(Surat Keterangan Bebas)을 하여 면제승인으로부터 9월까지 PPh22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25조 세제 혜택 (Insentif ansuran PPh25 법인세중간예납)

— KLU Lapmiran huruf F 에 해당되는 업종 또는 KITE로 지정된 회사에 해당되



김재훈 대표

는 납세자 대상으로 동 재무부장관령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5영업일 이내 요건 미충족시 거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 예납액의 30% 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 (Insentif PPN)

Kode KLU(klasifikasi Lapangan Usaha) Lapmiran huruf F 에 해당되는 업종, KITE 로 지정된 회사로서 환급액이 50억루피아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 신청 없이 부가세법 9조 4c 낮은 위험율의 과세 대상 기업과 같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처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무디스, 올해 인니 경제성장률 3% 예측...외환위기 이후 최저

국제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3일 올해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1999년 이래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다.

무디스는 서면을 통해 “1분기(1~3월) 성장률은 약간 침체할 정도이지만,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심인 자바섬 곳곳이 지역격리를 실시하면 경제 성장은 급속

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 대미 달러 루피아 약세 등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에는 4.3%까지 회복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 예측에 대한 아시아개발은행은 3일 당초 예측에서 2.7% 포인트 하락한 2.5%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3월 30일 2.1%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3.5%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Door Trim, Sun Visor, Headliner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매트,구멍조끼,수영보드,헬멧 및 장갑,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 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 E 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 toilon.co.id



한국건설의 아세안 진출 현황과 인프라 협력 필요성

1. 아세안 지역 해외건설 진출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196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누적 수주액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약 8,300억불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적 수주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동 지역이 약 4,300억불로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은 중동의 40%에 조금 못 미치는 1,660억불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세안 지역이 크게 약진하고 있다. 줄곧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던 중동 지역이 불안정한 유가 등의 원인으로 주춤하는 사이 아세안 지역이 높은 경제성장 및 풍부한 인프라



주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수주 금액으로는 인도네시아가 37억불로 단연 1위를 기록하였고, 베트남(16억불), 싱가포르(13억불)가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수주액 증가율은 라오스(1,259.9%), 인도네시아(326.7%), 미얀마(115.6%) 등이 높게 나타

보였다.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을 공종별로 분석해 보면, 2019년 플랜트가 43억불, 토목이 23억불, 건축이 9억불을 기록하였다. 최근 10년간의 공종별 수주 추이를 보면, 전체 아세안 지역 수주 실적에서 차지하는 플랜트의 비중은 50%~60% 수준에서 전

요성

1) 인프라의 중요성.

왜 인프라인가?

인프라 건설을 구시대적 정책이며 지양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 논리는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의 거시적, 경제적 효과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순간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그치지 않고 물류, 관광, 통신, 각종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강력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를 선순환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프라 개발이 거시적, 경제적 효과 뿐 아닌

제 발전을 위한 투자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나라가 아세안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투자임과 동시에 한국 사람들과 아세안 사람들이 교류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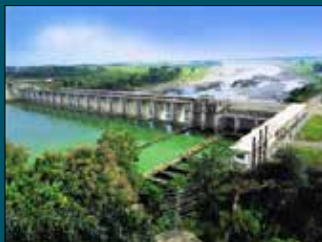
2) 한국 건설산업의 역량.

우리의 최대 강점분야 중 하나 대한민국은 인프라 개발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고 잘 알고 있다. 지난날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도 주택, 도로, 철도, 수자원, 전력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며 경제 재건의 토대를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왔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세계 건설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인프라를 건설해 오며 세계 6위의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 했다.

한국의 해외건설은 그간 고속도



▲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 필리핀 마리스 댐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 싱가포르 마리나 센터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수요와 신남방정책 등에 힘입어 2018년부터 중동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2018년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은 119억불로 중동 지역의 92억불을 추월하였고, 2019년에도 역시 아세안 지역 80억불, 중동 지역 47억불로 아세안 지역이 우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2019년 전체 해외 수주액, 중동 지역 수주액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각각 크게 감소한 반면, 아세안 지역은 오히려 45.9% 증가하였다. 이제는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최대 시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

났다. 수주 건수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이 123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필리핀(24건), 인도네시아(21건)가 2, 3위에 자리하였다. 1965년 이후 누적 수주액은 싱가포르가 430억불로 가장 컸으며, 베트남이 406억불, 인도네시아가 212억불로 그 뒤를 이었으나, 최근 5년간의 누적 수주액만 놓고 보면 베트남 140억불, 싱가포르 101억불, 인도네시아 72억불로 1, 2위가 바뀌었다. 5년 단위 수주금액 합계액의 증가율(2010년~2014년 합계액 대비 2015년~2019년 합계액)로 보면 브루나이(322.3%), 인도네시아(19.3%), 태국(14.5%) 등이 높은 성장률을

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토목의 비중 역시 20%~30%대에서 완만한 상승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 분야는 2010년~2014년 기간에 매년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15년 이후에 들어서는 10%대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1.8%로 감소하였다. 전기, 통신, 용역 분야는 금액이 크지 않아 등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수주액과 이전 5년간의 수주액을 비교해 보면 전기 분야는 196.5% 증가하였고, 통신 분야는 43.8% 감소하였다. 용역 분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2. 한-아세안 인프라 협력의 필

가장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복지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을 물, 교통, 전력, 주택 등 인프라에 의지하고 살아간다. 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건설업을 통해 모든 업종으로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가정의 수입 기반이 된다.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끌고 있으며,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

로, 고속철도, 공항, 발전 플랜트,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유의 근면 성실, 건설 기술력, 그리고 철저한 공기 준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룩하며 세계 각지에서 인정을 받았다. 또한 한국의 건설산업은 오랫동안 구축해온 신뢰성에 덧붙여 AI, 드론 등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초장대 교량, 초고층 빌딩 등 메가스트럭처 시공 기술 등 다른 국가들이 하기 힘든 새로운 기술까지 확보하였다. 우리의 건설산업은 아세안 인프라 사업의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이다.

3) 한-아세안 인프라 협력의 방향 앞서 언급한 1965년 대한민국

SNI 인증
IKF PT. INKO FAZZA TRADING

한국에서 직 수입한 제품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부합니다!
안전모는 세계최고 한국 안전모로

Jl. Palembang Raya Ruko Barcelona No. 52
Panunggangan Barat - Cibodas, Tangerang Banten

Telp : (62-21) 5572-7726
Mobile : 62 878-8754-7292
Email : inkofazzatrading@gmail.com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포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해외건설의 최초 사업은 바로 아세안 국가인 태국의 파타나-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필리핀 마리스 댐,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 싱가포르 마리나 센터, 베트남 다낭시 다퓍 국제신도시 등 눈부신 성과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세안 개별 국가들의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런데, 2016년 아세안 회원국 간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가 발표되었다. MPAC 2025에서는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인프라 구축이라고 지적하며 최우선 전략으로 꼽고 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아세안 사무국은 2019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40건(우선순위 사업 19건, 잠재적 사업 21건)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철



▲다낭 다퓍 국제신도시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뿐 아니라 전력, 통신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회원국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계성 프로젝트들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아세안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정 국가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의 연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중요성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한가지 분야는 스마트시티이다. 아세안의 도시들이 발전해

감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세 먼지, 수질 오염, 교통 체증, 전력 부족, 열악한 도시민 주거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가 아세안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은 이러한 도시 문제를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아세안은 ASCN(ASEAN Smart City Network)을 조직하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역외 국가들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좋은 사업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한-아세안 인프라 협력은 각각의 아세안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뿐 아니라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기획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아세안 프로젝트가 많은 중요성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등 아세안과의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세안 측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2019년 제1차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우리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그램인 K-City Network를 아세안 장관들에게 제안했었는데, 최근 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에 총 36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우리와 아세안의 인프라 협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가 아세안의 연계성과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아세안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상생변영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끝〉

글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차상헌
국토교통관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인간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이란 말이 대단하게 먹히던 때가 있었다. 기업의 정보 시스템을 경영정보시스템이라 했다. 정보시스템 앞에 단어를 붙이면 거의 다 통했다.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물류 등등을 붙여 썼다. 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만들고, 만든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체계이다. 그러면 정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안 되어 갈아엎어야 할 농사 같은 것들이다. 버리지 않으려면 가공을 해서 팔거나 알곡만을 골라 저장하는 것이다.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상태의 것이기에 당장에 써먹지 못하는 데이터와 구별된다. 그래서 정보는 정확성과 경제성, 적시성을 구비해야 한다.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정보의 경제성이란 정보의 가공이나 입수에 드는 비용보다 그 정보로 얻는 효익이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원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방책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사회적 격리가 실은 물리적 고립이다.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니 재택근무, 원격(화상)회의, 사이버 강의, 온라인 쇼핑, 인터넷 게임, 온라인 시청, SNS 하기, 보안 점검,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정보통신의 트래픽이 엄청 늘어났다.

90년대 이전에는 기업이 반듯한 전산실을 갖추려고 애를 썼던 것 같다.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분석가, DB관리자, 보안 전문가를 귀하신 몸이고 우대를 받았다. 그래서 '정보자원 관리'라는 이슈가 중요한 것이었다. 한 기업의 정보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람과 도구, 프로그램과 데이터, 정책과 제도를 모두 정보자원이라 한다. 도구는 입력, 처리, 저장, 출력력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 각종 리더와 저장

장치인 디스크나 테이프 등이었다. 전산실에는 항온 항습장치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사장실에는 없어도 전산실에는 에어컨이 있었다. 저장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백업(back-up)의 주기를 늦추거나, 일거리를 모아 한 번에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더러 썼었다.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아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드는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새로 업무를 개발하려면 프로그램을 짜야했다. 그러면 시스템 분석가와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고 전산요원은 자꾸 늘어나게 되니 비용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 그렇다고 개발한 업무가 썩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어느 사이, 기성 프로그램이 잘 나와서 이를 사서 조직의 사정에 맞게 약간 고쳐 쓰면 되도록 변하였다. 그리하면 전산화가 쉽고 빠르고 절약이 될 수 있었다.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어 입다가 몸에 꼭 맞는 기성양복이 많이 공급되어 몸에 맞는 옷을 골라 입으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추세가 점점 더 발전하여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구비한 대형 마트 체인처럼 정보기술 시장에도 변혁이 왔다. 엔드 유저들이 기기만 전원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돌아가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아웃소싱이고 플랫폼이며 클라우드이고 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이다.

남의 정보자원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아웃소싱은 플랫폼과 클라우드가 가능하기에 재택근무를 해도, 사이버 강의로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기업이나 학교는 큰 부담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메모리도 값싸고 성능이 좋아져 저장 비용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5G 통신은 엄청난 량의 트래픽을 감당하게 된다. 외부의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기



조기조 박사

업 활동의 일부를 맡기고 우리 기업의 핵심역량을 주요업무에 집중시켜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자는 '아웃소싱'은 1990년대에 들면서 정보자원의 아웃소싱부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도 다시 점검하게 된다. 소위 업무재설계라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다.

2020년대에 들어섰다. 일상에서 디지털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편해졌다, 이런 추세는 정보통신 기술과, 앱, 콘텐츠 등의 발달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손가락과 머리통은 커지고 다리는 퇴화하는 ET를 닮아갈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제 아무리 디지털에 집중해도 우리를 인간은 아닐로그다. 인간정보시스템은 쿠키명에 전원을 연결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며 즐기고 8시간 잠자며 재충전하는 것이다. 걷고, 쉬고, 나누고, 베푸는 만큼 즐겁고 건강해 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차별화된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

건축 설계

건설사업관리(CM/PM)

1967년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출발한 정림건축은 탁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전세계 30여 개국에서 4,7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2017년 영국 BD가 선정한 대한민국 1위 글로벌 건축회사입니다.

주요 설계 분야
복합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R&D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국립중앙박물관 / 서울 월드컵경기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중국 심양 롯데월드
리비아 트리폴리 JW 메리어트 호텔 / 인도네시아 장신 나이가리공장
인도네시아 태평양 워노기리 봉재공장단지 / 이화여대 서울병원 및 의과대학
폴란드 및 멕시코 만도 공장 / 베트남 롯데몰 하노이 /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스타필드 하남 / 말레이시아 아모레퍼시픽 공장 / 베트남 투티엠 에코스마티티
중국 청도 세브란스병원 **외국내의 다수 실적 보유**



JUNG L I M | INDONESIA

#506 Tower 2, Synthesis Square,

Jln. Gatot Subroto Kav. 64, No. 177A South Jakarta

Mobile +62 (0)852 1561 9583 / E-mail global@junglim.com

www.junglim.com

코로나 사태 지나면 전세계 경기부양책 ‘올인’ ... 돌아 올 ‘수주 잭팟’ 대비해야

코로나19와 유가급락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고 주요국 현장마다 ‘셧다운’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위기 후 찾아올 기회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 종식 시점이나 그 경제적 파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계 각국이 인프라 중심의 슈퍼 경기부양을 예고하면서 해외건설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7일 건설 및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3월 해외수주가 연초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금 회복세를 보일 것 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날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점진적으로 완화하면 유가반등과 해외수주 재개, 그룹의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수주 및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현 시점에서 건설업계의 해외수주 분위기를 가늠하기엔 무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부진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계약을 앞둔 프로젝트를 고려하면 올해 성과는 작년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급락한 건설업종 주가도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면서 대형건설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건설업계는 현재로서는 신규수주영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공사중단이나 공기지연, 미수금 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 희망적인 관점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계 각국이 마련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는 눈을

美·유럽 등 인프라 투자 확대
하반기 이후 회복세 전망 우세
수주 재개로 매출 증가 기대



폐지 못하고 있다.

국가마다 성장률 회복과 일 자리를 위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슈퍼’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나선 만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이미 3차에 걸쳐 총 2조1083억달러(257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한데 이어, 최대 2조달러 규모의 추가 인프라투자를 계획하고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회 기반시설 법안 통과를 주문하며 과감한 인프라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뒤늦게 비상사태 선포를 공식화한 일본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두배에 달하는 108조엔(약 12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에 나선다. 아직 인프라 투자 규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상당액의 건설투자가 동반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국도 이미 수천억 달러의 추경을 편성하고 인프라를 포함한 추가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각각 1000억~4000억 달러의 부양책을 동원할 예정이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도 각각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을 내놴다.

국내 업계의 해외수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와 중동, 남미 등에서도 인프라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당장은 방역과 내수진작을 위한 현금지원 등이 많지만, 조만간 대규모 인프라투자를 동반한 대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아직은 안전과 수익성 등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조심스럽게나마 현장 인력이나 네트워크를 동원해 위기 후 시장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 빠른 건설사들은 이미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계획 수집 및 발주자 관리에 나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와 유가폭락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었지만, 예견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면서 “입국제한 해제 등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신규 수주나 개발참여 등을 위한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자카르타 16.2만명 근로자 정리해고·자택대기

인도네시아 노동자연맹(KSPI)은 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받은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만 2,416명의 자카르타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및 자택대기 하도록 통지받았다. 상세 내역은 3,348개 회사가

3만 137명을 해고, 1만 4,697개 회사가 13만 3,379명을 자택대기 조치를 취했다.

회사들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제조업과 관광업 분야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뎀보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연맹의 익발 위원장은 “특히 제조업과 관광

업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가 계속되면 자동차, 전자부품, 섬유, 창고, 제화산업에서도 노동자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익발 위원장은 이어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 원자재 조달이 힘들어 문을 닫고 있는 공장들이 많다. 정부는 우선 수입 규제를 완화해 급한 불



부터 꺼야 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일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JOUN DOOR

Flooring, Skirting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sialis

Furniture

DONGSEO

동 서 가 구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
- + Deco Sheet
- + HPL
- + LPM
- + Duco
- + Veneer
- FURNITURE
- INTERIOR MATERIAL
- FLOORING
- SKIRTING

투자조정청, 의료용품 투자 인허가 절차 가속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3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의료용품 관련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3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BKPM은

온라인으로 일원화 하는 ‘온라인 싱글 서브 미션(OSS)’에 보건부의 시스템을 통합해 생산 증명 및 유통 허가 승인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3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BKPM은

유리알 투자환경개발 부부장 대행은 “OSS를 통해 사업 기본 번호(NIB) 및 사업인가, 영업·상업 허가 등과 함께 보건부의 인허가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용품 분야의 투자 인허가 신청건수는 2월 초부터 증가해 지난 9~15일에는 1,255건까지 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글 인도 파마(PT Eagle Indo Farma)는 3월 26일 OSS를 이용하여 손 소독제 유통허가 받았다. 이 회사의 에디 창업자는 “수출용으로 제조한 손 소독제를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BKPM에 상담했는데, 유통 허가를 즉시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비우선 인프라 사업 예산 코로나19 대책비로 배정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는 올해 예산 중 우선 순위가 낮은 인프라 사업의 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비로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 매체 끈판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사업·국민주택부 다니스 거주국장은 “우선 순위가 낮은 인프라 안건은 입찰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출장이나 연수 비용, 워크숍 개최 비용 등의 예산의 일부도 코로나19 대책으로 돌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위자야 까르야(Wijaya Karya, 이하 WIKA)의 자회사 위자야 까르야 브톤(PT Wijaya Karya Beton)은 올해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를 검토한다.

위자야 까르야 브톤은 올해 콘크리트의 생산 능력을 현재의 370만 톤에서 400만 톤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었다.

올해 실적 목표는 매출을 전년 대비 34% 증가한 9조 4,900억 루피아, 순이익을 10% 증가한 5,612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지난해 신규 수주액 8조 3,000억 루피아에서 차지하는 인프라 사업의 비중은 73%에 달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인니 외환보유액 7% 감소...코로나 혼란에 환시 개입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달 외환보유액이 7% 감소했다고 밝혔다. 7일 니혼게이지아신문에 따

르면 3월 말 인도네시아 외환보유액은 1천210억 달러(약 148조 원)로, 2월 1천304억 달러에 비해 7.2%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가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외환당국이 루피아 매수 개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혼란이 자금 유출과 환율 하락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등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 대비 루피아 가치는 지난 달 19일 15,900루피아로 하락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후에도 루피아는 하락세를 지속해 현재는 16,300루피아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PT. SEPULUH SUMBER ANUGERAH
새 가족을 찾습니다.

구분	내용
업종	건설업
구인인원	1. 토목 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2. 건축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3. 플랜트 배관 프로젝트 매니저 :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4. 기계프로젝트 매니저: 0 명/ 성별무관/ 대졸 / 경력필수(5 년)
주요업무내용	각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부터 유지 관리 단계까지의 발주자, 사업관리자, 건설 사업자, 설계/감리자 사이의 정보 흐름 관리 및 경영
우대사항	- 대졸이상 - 50 세 미 만 - 건설사 경력 5 년 이상 - 인니어, 영어 능통자 - 인니 건설현장 유경험자 우대 - 토목, 건축, 플랜트 배관, 기계 관련 현장 경험 있는 자 우대
제출서류 및 선발절차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전 근무지별 담당업무 및 실적) - 1 차 - 서류, 2 차 - 면접, 3 차 - 대표이사 면접 * 서류제출 및 문의 IBRAHIM HWANG (Tel : 0811100937) E-mail: ibrahim-hwang@pt-ssa.co.id

세금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세금문제(부가세 환급, 세금 경감) 대행

비밀 보장과 깔끔한 마무리 해드립니다!

Tax



PT. JOAKIM INDONESIA CONSULTING

Menara Jamsostek Tower N Lt.3, Jl. Gatot Subroto Kav.38, Jakarta 12710
상담문의 : 0813-1761-9876 (사무장)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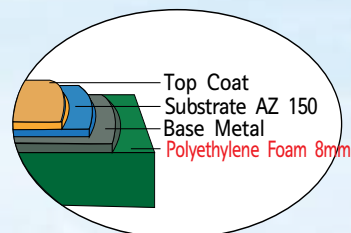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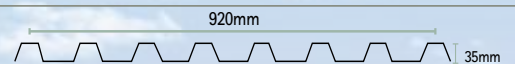
1. 35mm Trimd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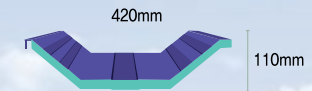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해외건설 ‘버티기 모드’ 로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 유가 폭락, 입국제한 확대 등 총체적 위기
입찰 · 계약 일정 불투명해지자 신규사업 수주 영업도 제한적

기존 현장 · 추진 중인 프로젝트 주요 발주처 관리에 역량 집중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유가 폭락, 입국제한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은 해외건설업체가 신규 사업 수주영업을 접고 ‘버티기’ 모드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에만 최대 200억달러에 달하는 입찰 및 계약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수주목표 보다 현장안전과 공정률, 기존 프로젝트 수익성 및 발주처 관리에 집중한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22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총 14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 · 외국인을 비롯, 한국발 입국자를 원천 봉쇄하는 곳만 75개 국가 · 지역에 달하고, 국내 특정지역(대구 · 경북 등)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를 금지하는 국가도 5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중국이나 동남아 등 17개 국가 · 지역은 한국발 입주자를 격리 조치하고, 46개국(지역)은 사증발급 중단 및 검역강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다.

입국제한 국가 및 지역의 면면을 보면, 사실상 국내 건설사들이 수주 및 영업활동을 펼쳐왔던 거의 모든 국가 및 지역이 국내 업계의 발길을 차단한 셈이다.

업계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또한 꾸준히 확대되면서 해외수주에도 서서히 충격파가 전해 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지난주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국제유가까지 폭락하면서, 해외수주 전선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오랜 ‘텃밭’인 중동지역의 공사발주 및 수주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장 올 상반기 예상됐던 입찰 및 계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 및 발주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국내 건설사의 입찰 및 계약이 불투명해진 공사물량만 최대 200억달러(한화 약 24조원)에 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입찰 및 계약이 올해로 이월된 물량만 13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는 지난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100억달러에 이르는 물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더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국내 건설사가 참여하는 입찰 및 계약 예정 물량도 100억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실제 A건설사는 이라크 소재 플랜트 계약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B건설사는 베트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입찰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에서 철도 및 송전선로 건설 등 2~3건의 신규 입찰을 추진했던 C건설사 또한 당분간 수주소식을 전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토로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유가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돼야만 신규 사업에 대한 수주영업도 가능하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현장(안전 · 공정)과 추진 중인 프로젝트 및 발주자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만 초기에 안정되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또다른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 전망도 있다.

저유가는 불가피하더라도, 전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에 나서는 만큼, 인프라 · 주택 등에 대한 건설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당분간 유가폭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세계 어느나라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지금은 그간 진행해왔던 사업 및 네트워크 관리에 집중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부양 의지를 고려하면, 머지 않아 다시금 공격적인 수주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대규모 사회적 제약’ 시행 관련 9가지 세부 지침 발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주정부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지 일간 콤파스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장관령 ‘2020년 제9호’에 의거한 PSBB 시행 관련 세부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PSBB 시행 기간은 4월 10일부터 14일간 유효 : 23일까지 시행 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2. 재택근무 의무적으로 시행 : 학교와 사업장 임시 폐쇄 (슈퍼마켓과 병원, 주유소, 은행 등 필수 8개 업종은 제외)
3. 종교 활동 제한 : 5명 이상의 모임은 모두 금지
4. 공공 장소 및 시설에서의 활

동 제한 : 슈퍼마켓과 병원, 주유소, 은행 등 필수 8개 업종은 제외

5. 사회 및 문화 활동 제한 : 결혼식, 피로연 등 금지

6. 대중교통 제한 : 대중교통은 오전 6시~오후 6시만 운행하고, 승객 수 고려하여 승객 간 거리 유지. 택시는 탑승객 수를 줄여야 한다.

7. 개인 차량은 자카르타 출입 가능 : 탑승객 수 제한하여 물리적 거리를 두고 앉기

8. 배송 서비스는 이용 가능 : 고객과 그랩 등 오토바이 택시는 승객이 아닌 상품만 수송할 수 있다.

9. 국방 및 치안 관련 특정 활동은 유지 : 군사 및 경찰 작전도 예외

자카르타 차량 홀짝제 폐지 19일까지 연장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홀짝제 폐지를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드쩍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교통경찰국은 5일 성명을 통해 “홀짝제 폐지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19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말하며 “19일에 코로나



19 주이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자카르타 교통경찰국의 삼보도 국장은 “정부가 물리적 거

리두기 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교통경찰이 직접 교통위반 차량을 긴급 단속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전자교통위반단속(E-TLE) 활용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자카르타주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사태 대응기간을 3월 22일~4월 5일에서 2주 연장해 4월 19일까지로 지정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소 리 항 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건설, 토목, 플랜트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건설
자카르타 021 521-1883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증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
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자카르타 021 720-4272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140-2833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SHINHWH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PT.POWERTECH ENG & CONST
021 520-2025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PT. WOUI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ENGINEERING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 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이메
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혹 업체정보의 변경 또는 누락이 있으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khong3000@gmail.com, 0858 9060 0962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T. ALAM DUNIA ENG & CONST
땅그랑 021 5579-8505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건축설계 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 기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건축자재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 s, Abrasive
땅그랑 021 5940-0081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PT. PUTRA HANKUK
Steel Con 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Contruksi Plat Besi, Stain-
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PT. KUMGANG HYUNDAI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2930 5937

HANSHIN
콜프래샤
땅그랑 021 5949-4000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틸
찌까랑 021 8990-8327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PT.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뽕 0721 780 151, 0721 781 457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즈빠라 0291 751-2706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카시 0811 1929 350

설 비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주)소리향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 7220

컴퓨터, CC TV, 보안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Computer LAN/Sound System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internet service Provider,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중 장비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컨설팅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 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건설신문 창조(월간)
특 징 : 창조는 건설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 업체 대표님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
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 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
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e-mail : khong3000@gmail.com

‘사회적 거리두기’의 디자인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전세계로 퍼진 바이러스는 펜데믹이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 기고문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건강’을 담보로 한 국가라는 거대한 관찰자의 위험을 경고 했으며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인류의

삶에 많은 변동을 주시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어째서 가능했던걸까’ 싶은 국가의 문화/관습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새로이 반추되었고, 우리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관습과 개념을 만들어야만 한다. 일례로 한국에서 국을 나눠먹는 문화와 길거리 식문화(오징어 따위)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신천지’라는 사이비는 음식에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다 바이러스를 통해 양지로 드러났고, 선진국으로 여겨지던 국가들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는 위기 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농담조로 2020년을 내년에 시작하자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2020년의 1분기가 지났고, 2분기가 시작됐다. 바이러스 발생 초반에 확진자 수가 많았던 우리나라를 해외의 여러 국가들이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별 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확진자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봉쇄전략을 통해 확산을 막고 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말을 통한 감염이 주요인인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몇 주간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많은 일상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쓰이고 있다. 일례로 경북지역 지하철은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모하

기 위해 ‘넋지 디자인’을 활용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브랜딩한 기업 로고들의 재치도 흥미롭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생각나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넋지디자인을 통해 흥미롭게 해소할 수 있을 바란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석한 다양한 로고 디자인



천년을 넘어서
첨성대는
민족의 자긍심이다.
선조의 지혜와 기술을
고스란히 이어
인도네시아에
우리 건설기업의 얼을
되새긴다.
<http://www.pt-ssa.co.id/>

신뢰와 기술! 전통과 경험!

Head Office &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M 68 Kaw, Modern Industri
Kav. 6 Cikande, Serang – Indonesia
Tel. (+62) 254 4029 47-49
Fax. (+62) 254 4029 51

Jakarta Office
Equity Tower Lt. 10-D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 Lot 9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Indonesia 12190
Tel. (+62) 21 5151 604
Tel. (+62) 21 5155 687